

결막에 발생한 원발성 악성 림파종 1예

백종민 · 김기산 · 박관규* · 이상현

= 요 약 =

악성 임파종이 결막에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결막에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 임파종은 40세 이상의 남녀에서 비슷한 빈도로 발생하고 하원개부에 호발하며 편측으로 좌, 우안에서 동일한 빈도로 발생한다. 중상으로는 안와연부의 종창이 가장 빈번하며 안구돌출, 안검하수, 동통 및 시력저하가 발생한다. 치료는 방사선요법이 결막에 발생한 원발성 임파종의 최선의 치료방법이고 외과적 절제요법만으로는 모든 종괴를 제거하기 힘들며 방사선요법과 병행하여야 한다. 그 예후는 전신적 침범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에서는 결막에서 이차적으로 발생한 악성 임파종의 보고는 있지만 원발성인 경우의 보고는 아직 없다.

저자들은 48세 여자의 결막에서 원발성으로 발생한 악성 임파종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한안지 32 : 698~701, 1991)

= Abstract =

A Case of Primary Malignant Lymphoma of the Conjunctiva

**Jong-Min Baik, M.D., Ki-San Kim, M.D., Gwan-Kyu Park, M.D.*,
 Sang-Hun Kim, M.D.**

Involvement of the conjunctiva with malignant lymphoma is very rare.

Primary malignant lymphoma of the conjunctiva equally affects men and women over age of 40 years and has a predilection for inferior conjunctival fornices. Most lesions occur unilaterally, involving right and left sides equally frequently. Periorbital swelling is the most common presenting symptom followed by proptosis, ptosis, pain and poor or blurred vision. Radiation therapy appears to be treatment of choice for malignant lymphoma involving the conjunctiva. Surgical treatment alone is less likely to remove all the tumor and should be conjoined with a wide field of radiotherapy. The prognosis of the case depends upon whether or not the disease is generalized.

Although in Korea a few cases of secondary involvement of the conjunctiva with generalized

〈심사통과일 : 1991년 7월 23일, 접수일 : 1991년 4월 16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aegu, Korea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Department of Patholog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aegu, Korea

malignant lymphoma have been reported, no primary case has yet been reported.

The authors reported here a case of primary malignant lymphoma of the conjunctiva in a 48 year-old female patient with a review of the literatures. (J Korean Ophthalmol Soc 32:698~701, 1991)

Key Words : Conjunctiva, Primary malignant lymphoma

서 론

림프망상계에서 유래되는 림파종은 대부분 양성이 나 드물게 악성종양이 생길 수 있으며 림프망상계가 전신 어디에나 분포되므로 원발성이나 이차성으로든 아주 희귀하나마 발생한다. 눈에 발생하는 임파종은 안와, 결막, 누기, 안검 등에 호발한다. 국내에선 결막에 이차적으로 발생한 임파종의 보고는¹⁾ 있었으나 결막에 원발성으로 발생한 임파종의 예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저자들은 결막에 원발성으로 발생한 악성림프종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48세 여자로 좌안의 비측 구결막, 하맹낭 및 하검결막에 발생한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5개월전 우연히 좌안의 비측 구결막, 하검결막에 작은 결절이 생겨 자내 오다가 내원 1달전부터 급격히 커져 내원시는 성인의 엄지 정도의 크기였고 종괴는 충혈된 결절 모양으로 돌출 되었으며 표면은 미끄러웠으며 주위와는 경계가 불명확했다(Fig. 1). 시력은 우안: 0.5, 좌안: 0.3이었으며 안압은 정상 범위였으며 기타 각막, 초자체, 안저소견, 안구위치, 안구운동등은 정상이었다. 전신상태는 양호했으며 두부, 경부, 흉부, 복부, 사지에 특이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림프절은 촉지되지 않았다. 흉부, 복부 X선 모두 정상이었으며, 말초혈액소견 및 뇨검사, 간기능검사, 심전도검사도 정상이었다. 골수천자검사도 시행했으나 정상 범위내였다(Fig. 2).

내원 3일 후 종괴의 전절제술을 시행했으며 술후 3개월 뒤 6Mev X선을 200cGY를 조사했으며 방사선 치료후 합병증으로 안검내반이 생겼으나 수술로 교정했으며 현재까지 재발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

Fig. 1. Preoperative appearance. Adult thumb tip sized tumor mass on the nasal bulbar conjunctiva and inferior palpebral conjunctiva of the left eye.

고 있다(Fig. 3).

병리학적 소견으로는 결막에 작고 비전형적인 임파구가 고르게 침윤되어 있었으며 형질세포양 임파구가 훌어져 있었고 PAS 염색상 (+)인 핵내 소체(Dutcher body)가 발견되었다. 또한 비전형적인 임파구가 주위 지방조직으로 침윤되고 있는 양상도 보여 준다(Fig. 4).

고찰

전신적 악성임파종 혹은 양성임파종이 이차적으로 눈과 안와에 침범하는 비율은 약 2~4% 뿐이다²⁾. Schultz와 Heath는 임파종 1600case중 14례만이 결막에 침범했다고 했으며³⁾ 임파계통 이외에서 생기는 원

Fig. 2. Bone marrow biopsy shows non-specific findings.**Fig. 4.** Light microscopic picture shows diffuse proliferation of lymphocyte and plasmacytoid lymphocytes, some containing intranuclear inclusions (*), called Dutcher body. PAS stain, $\times 200$.

누기 14예, 안검 10예, 포도막에 8예가 발생했다고 했다⁵⁾. 이와같이 전신적 악성림파종이 이차적으로 결막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원발성으로 결막에 발생한 악성림파종은 더욱 드물게 국내에서 보고된 바가 없다.

악성림파종은 40세 이상의 노년에 잘 생기며 남녀 성별 빈도 차이는 거의 없으며 결막의 하원개에 호발한다. 본 예에서는 40대의 여자로 결막의 하원개와 구결막 및 검결막에 발생했다. 악성종양은 양성보다 때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용기되어 있고 크기도 대체로 더 크고⁶⁾ 다양하며 결막표면의 혈관이 저명하다⁸⁾.

정확한 진단, 분류, 치료를 위해서는 생검 및 조직 병리학적 표적자를 이용한 혈액검사가 필요하다⁷⁾. 현미경적 소견은 germinal center 없이 비전형적 임파구가 고르게 중식되어 있으며 결막상피 및 주위 결체 조직으로 침범되는 것을 본다. 방사선 치료가 결막을 침범한 악성 임파종의 최선의 치료방법이나 외과적 수술요법과 병행하는 것이 근본적 치료라 하겠다^{6,8)}. 악성 임파종의 예후는 전신적 침범여부가 중요한 관

Fig. 3. After operation and radiation therapy, tumor mass was removed completely.

발성 악성종양중에서는 단지 1%만이 눈과 안와에 전 이했다는 보고도 있다⁴⁾. Reese는 안와 영역에 발생한 악성림파종 총 171예중 안와내에 102예, 결막 32예,

건이며 국한된 악성 임파종의 경우에 예후가 더 좋다.

감별진단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육안으로 볼 때 안와지방, 편평상피세포암, 섬유조직구증, 혈관종, 결막상피하 유전분 축척및 pigment가 적은 흑색종과 감별해야 한다⁶⁾.

결 론

저자들은 48세 여자 환자의 구결막, 검결막 및 하맹낭에 걸쳐 발생한 원발성 악성림프종 1예를 경험하여 수술적 제거 및 방사선 치료의 병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박용덕, 정인희, 윤동호 : 결막에 침윤된 백혈병성

전이를 일으킨 악성 임파종 1예. 한안지 22: 297-299, 1981.

- 2) Lerman S : *Primary lymphosarcoma of the conjunctiva*. Am J Ophthalmol 50:147, 1960.
- 3) Schulz, Heath P : *Lymphoma of the conjunctiva*. Radiology 50:500, 1943.
- 4) Friedenwald JS : *An atlas and textbook of ophthalmic pathology*, Philadelphia, Saunders, 1952, pp.197.
- 5) Reese AB : *Tumors of the Eye*, 3rd ed, New York, Harper & Row, 1976, pp.387-389.
- 6) Sigelmann J, Jakobiec FA : *Lymphoid lesions of the conjunctiva ; relation of histopathology to clinical outcome*. Ophthalmology 85:818-43, 1978.
- 7) Vogiatzis KV : *Lymphoid tumors of the orbit and ocular adnexa ; A longterm follow up*. Ann ophthalmol 16:1046-1055, 1984.
- 8) Duggan HE : *Therapy of lymphosarcoma of the conjunctiva*. Arch ophthalmol 68:498-501, 1962.
- 9) Saphir O : *A text on systemic pathology*. vol 2, New York, Grune and Stratton Inc, 1959, pp.1261.